

고정희 시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재현적 발화 양상 연구*

- 시적 발화에 나타난 아이러니적 기호작용을 중심으로

윤 인 선**

1. 현실에 대한 재현적 발화: 모방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으로
2. 현실에 '대해' 수행된 시적언어의 지표성과 발화수반력
3. 종교를 '통해' 수행된 시적언어의 상징성과 발화효과력
4. 현실에 대한 재현적 발화를 통해 형성되는 아이러니적 기호작용

〈국문초록〉

본고는 고정희 시가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적 언어의 특징과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기호작용의 아이러니적 성격에 관해 연구한다. 고정희에게 있어서 현실은 시 쓰는 과정에서 항상 핵심적인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정희와 현실의 이러한 관계를 모방을 바탕으로 한 재현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고정희를 어떠한 현실을 모방하여 표현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성시인, 저항시인, 기독교시인과 같은 선험적인 어휘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고정희가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아닌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

* 이 논문은 국제비교한국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이은정 선생님과 ‘고정희와 여성문학 연구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희가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현실을 모방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현실을 발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발화 전략을 통해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실을 퍼스 기호학에서 논의된 도상성을 띤 일차성의 자질로 보고, 먼저 이것에 구체적인 시공간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현실에 ‘대해’ 수행된 시적 언어의 지표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가 지니고 있는 발화수반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을 종교 형식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징적인 메시지로 표현하는 종교를 ‘통해’ 수행된 시적 언어의 상징성과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효과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상의 두 논의를 통해 현실이라는 일차성의 대상을 이차성인 지표성과 삼차성인 상징성을 지닌 시적 언어로 발화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시적 언어의 아이러니적 기호 작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는 고정희의 시 쓰기를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모방하고 사회참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맥락을 넘어서 허천이 논의한 아이러니의 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복적이고 이데아 지향적인 발화 전략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주제어 : 고정희 시, 발화행위, 발화수반력, 발화효과력, 퍼스 기호학, 아이러니,

1. 현실에 대한 재현적 발화 : 모방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본고는 고정희 시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재현적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적 언어의 특징과 그 기호작용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고정희가 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인식한 현실을 ‘어떻게’ 발화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상으로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스스로가 지각하고 인식한 현실을 독자와 커뮤니케이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 전략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고정희는 1979년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밝고 있는가』에서부터 1991년 6월 지리산 뱀사골에서 실족사하기 전까지 모두 11권의 시집과 1권의 유고시집을 남겼다. 이러한 시작 활동에 있어 고정희는 시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정희 시의 근간은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현실을 자신의 삶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의 범위는 그의 삶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것, 사랑과 삶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고정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선험적 어휘로 규정하려 해왔다.

첫째 고정희는 지금까지 우리 시사 속에서 여성문제를 가장 앞서 리에서 폭넓게 탐구한 시인(중략) 둘째 고정희는 기독교적 세계관 및 상상력을 한국의 구체적인 역사 현장과 결합시킨 현실 참여적 기독교 시인(중략) 셋째 고정희는 피지배자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사와 현실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의 변혁을 꿈꾼 시인(하략)¹⁾

이러한 관점은 고정희가 바라본 현실을 여성/기독교/현실 참여와 같은 몇몇 측면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고정희 시를 연구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1) 정효구,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인문학지』 제17권,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43~44쪽.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무엇’이 아닌 현실을 ‘어떻게’ 소통하려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희 시의 중요한 소재가 생활인으로서 바탕을 두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할 때 그동안의 시선이 ‘어떻게’가 ‘무엇’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본고에서는 현실의 양상을 세분화하기보다는 다양한 현실 자체를 ‘어떻게’ 발화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퍼스 기호학(Peircean Semiotic)의 근간을 이루는 삼항성을 바탕으로 한 기호분류체계와²⁾ 발화행위(speech act)의 맥락에서 현실을 재현한 고정희의 시적 언어가 지닌 자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퍼스에 따르면 현실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일차성의 자질을 띤다.³⁾ 하지만 이것이 타자에게 지각되어 반응하게 되는 과정, 즉 시인을 통해 시적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이차성과 삼차성의 자질로 변화되어 발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인이 인식한 일차성의 현실에 구체적이고 지표적인 시공간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차성의 자질을 띠게 되는 것이며, 상징적인 메시지로 코드화 되어 발화된다면 삼차성의 자질을 띠게 되는 것이다.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의 차원에서 일차성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구체적인 시공간을 지닌 무엇 혹은 상징적 메시지로 독자와 커뮤니

- 2) 퍼스는 기호의 유형을 범주론에 근거하려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삼항성을 지니며 다음과 같다.

일차성	성질기호	도상	날말기호
이차성	개별기호	지표	발화기호
삼차성	법칙기호	상징	논증기호

- 3) 퍼스에 따르면, “일차성이란 다른 어떤 것파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는 존재의 양식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관념은 느낌의 자질들 혹은 외관과 같은 것이다. 기억되거나 지각되는 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자질이며 분석될 수 없는 전체적인 인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고정희가 시 쓰기를 위해 인식하고 지각하는 모든 현실들을 일차성의 자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송효섭, 『문화 기호학』, 아르케, 2000. 77쪽.

- 4) 이윤희, 「퍼스 기호학적 접근으로 본 서사적 커뮤니케이션」, 『기호학연구』 제 25집, 한국기호학회, 2009. 472~480쪽.

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차성과 삼차성의 자질로의 변화는 대상인 현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대상에 어떻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혹은 대상을 어떻게 상징화시켜 이야기하고 있는가의 양상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⁵⁾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정희가 현실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행위의 자질에 주목할 것이다. 발화행위 특히 현실에 대한 발화행위는 현실에 대한 ‘재현’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동안 고정희 문학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재현의 양상은 암암리에 문제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전통적인 재현관에 입각하여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퍼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단순한 재현관을 넘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허천(Hutcheon)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현은 단순히 모방의 영역을 넘어서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호들을 보낼 수도’있게 되는 것이다.⁷⁾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란 발신

5)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발화행위(speech act)는 언어철학자 J.L. 오스틴의 논의에 바탕을 한다. 그는 의미를 가지는 발화행위,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어떤 힘을 가지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nary act)와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성취하는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를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오스틴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정희 문학에 나타난 발화행위에 관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J.L. Austin(김영진 역),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992. 152쪽 참조.

6) 고정희 문학을 발화행위와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 박현정(2002)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고정희 문학을 초기 시와 후기 시로 구분하여 전자를 화자-지향적 발화로 후자를 청자-지향적 발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발화행위 자체를 통해 들어나는 시어의 자질보다는 그 수신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구분을 넘어서 화자가 발화하는 시적언어의 모습과 그에 따른 발화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박현정, 「고정희 시 연구: 상상력과 예술방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7) Linda Hutcheon(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56~57쪽.

자가 나뉘는 방식으로 인식하여 표현한 기호들이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전략을 지니고 수신자에게 소통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해 고정희가 시적 언어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재현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모방이라 아니라 작가의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현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이차성과 삼차성의 자질을 지니는 기호를 생산해내는 일련의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작가의 숨겨진 발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본고에서는 고정희가 현실을 인식하고 발화하는 방법을 크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양상과 지각한 현실을 종교라는 형식을 ‘통해’ 이야기하는 양상을 나누어 생각해 볼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은 일차성의 자질을 지닌 현실에 시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여 이차성의 자질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 현실을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 삼차성의 자질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이러한 두 발화 양상이 이루는 기호작용은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시인의 발화 전략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정희의 시 중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그 발화양상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2. 현실에 ‘대해’ 수행된 시적 언어의 지표성과 발화수반력

고정희는 작품 활동을 통해 생활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시적 언어로 발화해 왔다. 특히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뿐만 아니라 지리산에서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시공간을 확보하여 보여주는 다양한 시적 발화행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고의 전제에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로 정리한다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은 일차성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시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여 이차성의 자질로 표현한다는 의미이며,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닐라 베이로 들어오는 유일한 출구였던 만, 그래서 잔혹한 침략군과 유격대가 들어오는 문이었던 코레히도 아일랜드에는 한 나라의 서럽고 억울한 근세사가 고수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필리핀 백성의 가슴을 겨냥한 아흔한 대의 미제 포탄기지가 고올도저 말없는 푸른 하늘을 향해 예 모습 그대로 장전되어 있는가 하면 (중략) 나는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만 오천여 명의 전몰장병 위령탑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살아있는자들의 손끝으로 새긴 비문을 음미했습니다.

<코레히도 아일랜드의 증언>

위 시는 세계대전이 필리핀에 남긴 전쟁의 상흔과 그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세계대전의 모습은 일면 고정희의 현실과는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이 시를 그녀가 필리핀의 한 학술회의에 다녀온 후 그곳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인식한 현실을 시적 언어로 발화하고 있다는 맥락을 통해 볼 때 현실을 인식하고 재현하는 시적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인은 주어로 실제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나’를 등장시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시인인 내가 속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시 안에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양상의 발화행위는 아니다. 단지 나의 시선을 통해 지표성을 띤 사건을 보여주며 구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정희 자신의 현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서 체험한 사건을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하는 발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에 대한 발화는 시인 스스로가 놓여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투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이 인식한 현실에 대한 허구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국의 근대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산업발전 지랄방광 나와 무슨 상관이리
 의지가지 하나 없는 인생이 서러워
 모래밭에 혀를 콕 깨물고 죽은들
 요새말고 나도 홀로서기 좀 해보자 했을 때
 아이고 데이고 어머니야
 수중에 있는것이 몸뚱이뿐이라
 식모살이도 이제 싫고
 머슴살이이도 이제 싫소
 애기데기 부엌데기 구박데기 내 싫다.
 깜깜질벽 외나무다리애
 검부락지 같은 줄 하나 잡으니
 그게 바로 구멍 팔아 밥을 사는 여자 내력이라(허, 좋지)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

위 시는 서술하는 주체의 사적 고백과 같은 시선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발화행위는 앞서처럼 사실성을 담보하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구멍 팔아 밥을 사는 여자’로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감정 이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위 시는 고정희가 인식한 여성의 삶을 허구적인 설정을 통해 그려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발화행위 양상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편의 독백처럼 말을 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해 감정 이입적 정서를 통해 심리적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말미에 ‘허, 좋지’라는 취임새를 통해 이러한 감정 이입의 정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화 양상은 발화 과정에서 일어난 ‘유사성에 바탕을 둔 시공간에 대한 창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비록 허구적일지라도 자신의 인지 체계 안 존재하는 것과 혹은 이미 스키마적으로 알고 있는 체계와 유사성을 띤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여 현실

에 지표성을 부여하여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정희는 스스로가 인식한 현실에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여 지표성을 지닌 시적 언어를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지표성을 지닌 발화는 독자들에게 자신과 관련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작가가 인식한 현실의 모습을 독자들이 경험적 차원의 결여 없이 즉, 정서적 거리를 최소화시켜 받아드리도록 이끈다.⁸⁾ 다시 말해, 고정희가 현실에 대해 발화하는 시적 언어는 인접성과 유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형성된 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접성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표성을 띤 시적 언어는 독자에게 경험적 결여 없이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사적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⁹⁾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현실에 ‘대한’ 발화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 그것을 통해 직접적인 해석이나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독자의 경우 이러한 지표기호로 전달되는 현실의 모습에서 지표성을 통한 구체화로 인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적 해석이나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행위를 본고에서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nary act)로 간주할 것이다.¹⁰⁾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현실에 ‘대한’ 발화행위의

8) 이윤희, 앞의 책, 476쪽.

9) 유사성과 인접성을 통해 형성된 시적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독자의 경험적 거리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은유와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환유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김옥동에 의하면 “은유에서 유사성을 밝히는 데에는 유추의 과정이 필요하며 환유에서 인접성을 찾아내는 데에는 유추보다는 연상 작용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때 유추와 연상 작용에는 모두 독자의 입장에서 수사학적으로 표현된 시적 언어를 자신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자가 시를 읽는 행위는 지표성을 지니고 표현된 인접성과 유사성의 시공간에 연루되어 해석에 참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독자가 느끼게 될 경험적 결여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262~264쪽.

10) 오스틴은 발화수반행위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거나 경고함/판결이나 의도를 알림/형을 언도함/임명 혹은 공소 혹은 비판을 함/동일함을 증명하기 또는 기

경우 문법적, 표현적, 일차적 의도에 집중하여 청중에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론적 발화인 것이다.¹¹⁾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인은 인접성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지표의 투사와 창출을 통해 지표성을 지닌 시적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희의 문학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발화행위는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독자들에게 경험적 결여 없이 인식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3. 종교를 ‘통해’ 수행된 시적 언어의 상징성과 발화효과력

고정희의 현실 인식에 대한 시적 발화행위 중 본 장에서는 현실 인식을 종교를 ‘통해’ 발화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겠다. 앞 장에서 살펴본 고정희의 현실 인식에 대한 발화는 현실을 지표기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정희가 현실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그쳤다면 단순한 현실 고발적 시인에 머물렀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실을 인식하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화행위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의 형식의 맥락을 통해 상징적 메시지로 재현되는 시적 언어에 주목해 볼 것이다. 이때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의 모습에는 종교적 현실의 모습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¹²⁾ 발화행위의 맥락에서 ‘어떻게’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종

술하기.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정희의 현실에 ‘대한’ 발화양상은 ‘정보제공, 보증, 경고함’의 측면에서 발화수반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J.L.Austin(김영진 역), 앞의 책, 128쪽.

11) 위의 책, 128~130쪽, 참조.

12) 고정희 문학에 있어서 종교 역시 문제적인 현실의 한 단면이었다. 따라서 현실 인식 대한 시적 발화 양상에서 종교적 현실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교적 형식'을 차용하는 발화에 주목할 것이다.

(1) 성서와 기도문 형식의 패러디를 통한 시적 언어

먼저 현실을 성서의 구절과 기도문의 형식의 패러디를 통한 나타난 시적 언어에 관해 생각해 보겠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본님
가진자의 힘을 악랄하게 하옵시매
지상에서 자본이 힘있는 것같이
개인의 삶에서도 막강해지이다
나날이 필요한 먹이사슬을 주옵시매
나보다 힘없는 자가 내 먹이사슬이 된 것같이
보다 강한 나라의 축재를 복돋으사
다만 정의나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본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통치에 있사옵
니다.(상항~)

<새 시대의 주기도문>

위 시는 ‘주기도문’을 원텍스트로 하는 패러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은 자본이 마치 신과 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본님’이 되고 하느님이 배푸는

“대답해 주시지요 하느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신지요(중략)이 곤궁한 시대에 / 교회는 실로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 교회는 너무 많은 재물을 가졌고 너무 많은 거짓을 가졌고 너무 많은 보태기 십자가를 가졌고”(행방불명되신 하느님께 보내는 출소장)

이처럼 고정희는 교회의 모습 역시 비판적으로 인식한 현실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정희에게 있어서 종교를 단순히 기독교에 국한시키지 않고 폭넓은 ‘종교’의 맥락에서 볼 것이며 종교를 ‘통한’ 발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하는 현실적인 교회의 종교가 아닌 ‘종교성’을 통한 발화로 정의할 것이다.

자애와 사랑은 자본님이 휘두르는 먹이사슬과 식민통치로 치환된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현실을 제시하기 위해 원텍스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주기도문을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원텍스트의 고유한 신성함에 빛을 지는 것과 동시에 원텍스트를 낯설게하여 거리를 둠으로써 고정희가 발화하고자하는 현실의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즉 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이미 숙지하고 있는 의미와 전혀 상반된 의미를 병치한 패러디 기도문을 제시함으로써 기도문을 외우면서 신성을 인식하고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악성을 반복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행위양상을 통해 패러디가 원텍스트를 단순히 비꼬는 차원에서 유머로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서 구절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발화하는 현실 인식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때에 예수께서 자본시장을 둘러보시고
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자본을 독점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부자들의 저승에 있게 될 것이다

땅을 독점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땅 없는 하늘나라에 들지 않을 것이다.(중략)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불-행-하-다

<가진 자의 일곱가지 복>

위 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는 성서 구절에 대한 연속적인 패러디이다. 이러한 모습 역

시 앞서 살펴본 기도문의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원텍스트의 신성함을 바탕으로 하지만 동시에 그 텍스트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해 고정희가 인식한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 발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와 기도문 형식의 패러디를 통한 발화행위는 패러디가 지니고 있는 전복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패러디하는 대상에 대한 합법성-신성함-에 대해 인정 한 다음 그 형식을 다른 것으로 채움으로서 전복시킨다. 이러한 전복적인 발화는 “패러디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새로운 정치형태의 탄생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라카프라(LaCapra)의 말을 인용한 허천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¹³⁾ 이처럼 자본주의와 같은 현실적인 모습을 성서와 기도문의 형식을 통해 패러디로 발화한 시적 언어의 경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종교성’이라는 신성함에 기대어 원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날(edge)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 굿 형식의 사용을 통한 시적 언어

고정희 문학에 있어서 종교를 ‘통한’ 현실에 대한 발화양상은 굿 형식의 차용을 통한 시적 언어의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굿 형식은 『초혼제』와 『저 무덤 위의 푸른 잔디』와 같은 장시집을 비롯하여 짧은 단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때 굿 형식을 통한 발화행위의 특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굿 형식은 청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즉 굿의 발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독백이 아닌 청자에 대한 끌어들이는 양상을 필수로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다. 다음으로 사적 고백이 중심이 된다. 굿은 열린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이지만 이 안에서 이야기되는 방식은 사적 언어를 통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굿이라 하

13) L. Hutcheon(장성희 역), 앞의 책, 168쪽.

더라도 발화행위의 차원에서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발화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정희가 현실에 대해 굿 형식을 통해 발화하는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

옹헤야~(옹헤야)

옹헤야~(옹헤야)

금수강산(옹헤야) 통일산천(옹헤야) (중략)

상하구별(옹헤야) 구별없고(옹헤야)

좌우귀천(옹헤야) 구별없다(옹헤야)

남녀차별(옹헤야) 없는세상(옹헤야)

어허허허(옹헤야) 잘도간다(옹헤야)

<몸통일 마음통일 밥통일이로다> 中 ‘뒤풀이’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은 ‘상하구별’과 ‘좌우귀천’이 ‘구분있고’ ‘남녀차별’이 ‘있는세상’이다. 하지만 마당굿 안에서는 이런 부도덕이 없는 세상은 발화하고 있다. 이것은 굿의 뒤풀이라는 특성상 굿이 마치고 벌어지기에 그 안에서 기원한 것들이 전달되어 해결되었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화라고 볼 수 있지만 ‘남남북녀 초례청’으로 시작하는 마당 굿에 나타난 발화양상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발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굿이라는 종교적 형식을 통해 인간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다시 말해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현실에 대한 간절함을 바탕으로 한 발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제의를 사회극의 리미널(liminal)한 과정으로 보는 터너의 관점¹⁴⁾을 따를 때, 적어도 굿 안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사라진

14) 터너는 제의의 과정으로 리미널한 속성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모순이나 차별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황을 의미하며, 굿의 과정은 이러한 제의의 리미널한 측면이 발현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V. Turner(이기우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115~129쪽.

것처럼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옹헤야’와 같은 전통적인 장단을 통해 메기고 받는 양상은 굿의 발화에 청중을 자연스럽게 끌어드리는 전략을 띠고 있다. 이처럼 굿 형식을 통한 발화행위에서는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과는 상반된 발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굿의 발화 형식이 지니고 있는 리미널리티(liminality)적 자질 안에서 청중을 발화 맥락 안으로 끌어들여 실제 현실 너머의 이상적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다.

굿 형식의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적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발화 역시 찾아 볼 수 있다.

이 냇을 받아
칼날을 꺾으소서
묘지번호 96번 박현숙
생멸 아니 열여덟
신의여고 3학년
군부도재 총칼 아래 산화한 냇

이 냇을 받아
칼날을 꺾으소서
묘지번호 83번 손옥례
생멸 나이 열아홉
송원여고 3학년
계엄군 총에 맞아 암매장당한 냇

<냇이여, 망월동에 잠든 냇이여>

위 시에서 고정희가 인식한 현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이다. 고정희는 이러한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문제 현실을 ‘박현숙’과 ‘손옥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물의 이름을 통해 발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 안에서 우리 민족이 경험한 문제적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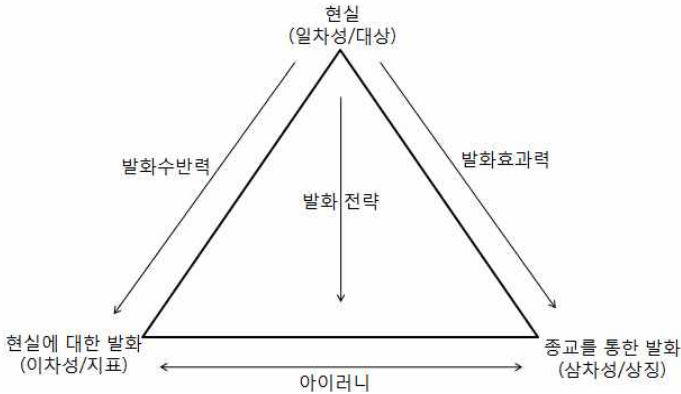
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발화 양상은 앞서 2장에서 살펴 본 지표성을 지닌 감정 이입적인 발화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굿이라는 종교적 형식의 맥락을 통해 발화함으로써 이들의 구체적인 사건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기억하고 위로해야하는 무언가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굿이라는 형식을 통한 현실에 대한 발화는 굿 형식이 담지하고 있는 리미널한 속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인이 말하는 발화가 아닌 청중에게 이상향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대화하는 양상이며 동시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건에 대해 굿을 통해 풀어내야 할 현실로서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정희가 종교의 형식적인 측면을 빌려와서 발화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인식과 해결에 대한 방향성 혹은 가치를 추론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종교 형식의 맥락 안에서 상징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는 종교라는 맥락 안에서 발화되는 시적 언어라는 점을 인식한 후,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되는 상징기호의 기호작용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고정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의 양상은 앞서 설명한 발화효과행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 인식에 대해 종교라는 형식을 통해 발화하고 있는 시적 언어의 경우 ‘종교성’이라는 초월적이고 이데아적인 ‘발화의 맥락’에 기대어 단순히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추론하고 특정한 행동으로 이르게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희는 성서와 기도문 형식의 패러디와 굿 형식을 차용한 시적 언어를 통해 독자에게 자신이 인식한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어떻게 치유해야하고 해결하고 행동해야하는지에 관한 지향점에 대해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발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현실에 대한 재현적 발화를 통해 형성되는 아이러니적 기호작용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퍼스의 기호 분류에 관한 인식론과 발화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고정희의 현실에 대한 발화가 지니고 있는 시적 언어의 특징과 그것이 형성하는 발화수반력과 발화효과력의 양상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고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두 발화행위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시적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기호작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호작용의 모습을 아이러니로 간주할 수 있다. 아이러니란 표현에 대한 수사학적 측면을 이른다. 하지만 표현에 아이러니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 표현이 기반하고 있는 시인의 인식론적 차원 역시 아이러니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정희의 현실을 바라보고 발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적 언어가 지니고 있는 아이러니적 기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앞서 설명한 두 발화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뮤크(Mueke)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드러낸 것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의

도를 추론하도록 이끄는 수사법이다.¹⁵⁾ 고정희의 현실을 재현하는 발화 행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차성의 대상으로서 ‘현실’이라는 인식의 공통 준거점을 놓고 한쪽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며 지표성을 지닌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종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지배하는 코드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신성함에 기댄 풍자와 극의 리미널한 발화맥락 안에서 고정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궁극적인 발화의 지향점 혹은 이데아에 대해 추론하게 하는 상징적 발화를 하는 것이다.¹⁶⁾ 그리고 이러한 점은 들뢰즈(Deleuze)가 말하는 아이러니가 지닌 이데아에 대한 상승지향적 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¹⁷⁾ 이런 과정에서 ‘발화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발화 효과력은 청중을 단순히 현실을 보는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데아적인 측면에 실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시 말해, 종교를 통한 현실을 재현하는 발화에 나타난 발화효과력을 지닌 시적 언어들은 현실에 대한 발화수반력을 지닌 시적 언어와의 상대적/대비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아이러니적 기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고정희의 발화행위가 형성하는 의미구조는 아이러니가 지니고 있는 비평적 날(irony's edge)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⁸⁾

이처럼 고정희의 시 쓰기의 의미는 단순히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15) D. C. Mueke(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11쪽.

16) 이점에 대해서는 고정희가 인식하는 종교성의 맥락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측면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조주의적 권위주의적 종교가 아닌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차원일 것이다.

17) 특히 성서에 대한 패러디에서 이러한 패러디가 해학이 아닌 아이러니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해악은 가치론적인 면에서 하강지향적인 반면 아이러니는 이데아에 대한 상승의식을 담보하는 수사학이기 때문이다.

신지영, 『들뢰즈로 말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 그린비, 2008, 122~126쪽.

18) L. Hutcheon, *Irony's edge: the theory and politics of Irony*,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을 넘어서며, 시적 언어들 간의 아이러니적인 기호작용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발화하는 전복적이고 이데아 지향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고정희, 『고정희 시전집 1, 2』, 또 하나의 문화, 2011.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믿음사, 2004.
- 박현정, 「고정희 시 연구: 상상력과 예술방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 신지영, 『들뢰즈로 말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 그린비, 2008.
- 이윤희, 「퍼스 기호학적 접근으로 본 서사적 커뮤니케이션」, 『기호학연구』 제25집, 한국기호학회, 2009.
- 정효구,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인문학지』 제17권,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 Charles Sanders Peirce(이유선 역), 『퍼스의 기호학』, 나남, 2008.
- D. C. Mueke(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J. L. Austin(김영진 역),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992.
- L. Hutcheon(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 V. Turner(이기우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 Colebrook, Claire. *Irony*, New York: Routledge, 2004.
- L. Hutcheon, *Irony's edge: the theory and politics of Irony*, London & Newyork: Routledge, 1995.

〈Abstract〉

The Study on the Representative Utterance of Reality in Goh Jung Hee's Poems: Focusing on the Ironical Semiosis of Poetic Utterance

Inson, Youn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Go Jung Hee's poetic language features and ironical semiosis on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Goh Jung Hee's poem, reality was always considered as essential. In the previous studies, Goh Jung Hee and reality was considered as mimesis. Previous studies typically categorize her as one of the female resistant poets or Christian poets depending on how it represents reality.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not which reality she utters about but how she utters the reality. Through this process, I discuss the utterance strategy of how to communicate with the reader. First, this paper explores her poetic language 'about' reality, Indexicality, given concrete time and space on Firstness in Peirce's semiology. Then I discuss the illocutionary power in this language. Next, this paper focuses on the poetic language 'through' religion, Symbolity, given symbolic message on Firstness in Peirce's semiology. The perlocutionary power in this language is also discussed. Through discussion, I conclude the ironical semiosis is made by utterance with Indexicality and Symbolity.

Eventually, this paper discusses Goh Jung Hee's strategy of writing in *Irony's edge* of Hutcheon is subversive and idea-oriented and not simply

resistant.

Key words : Goh Jung Hee, speech act, perlocutionary act,
illocutionary act, Peircean Semiotics, irony

논문접수일 : 7.3 / 심사기간 : 7.20~8.5 / 게재확정일 : 8.10
--